



알리
신선식품 개시
쿠팡·컬리 '초긴장'
너



Life

“6兆시장 잡아라”
K-톡신
미국 진출 경쟁
L4



정겨운 천 따라 걸으니... 벽화 속 3·1 만세운동 역사 한눈에

되살아나는 서울

성북·동대문구 '성북천'

성북천은 서울 성북구 북악산 동쪽 기슭에서 발원해 남쪽으로 흘러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청계천과 합류하는 지방하천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의 '한국지명유래집'에 의하면, 이 물줄기는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북쪽에 있던 탓에 '성북천'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과거 성북천을 따라 내려가면 편히 앉아 쉴 만한 큰 바위가 있었다. '얕일 바위'라고 불렸으며, 이를 한자로 옮겨 '안암(安岩)'이라 했다. 성북천의 또 다른 이름인 '안암천'의 유래가 여기에서 비롯됐다.

서울역사편찬원이 펴낸 '서울의 하천'에 따르면, 조선시대 해화문 밖 왼쪽 일대에 성북천이 흘러 계곡과 언덕을 끼고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복숭아를 재배해 도성에 팔며 생계를 이어 갔고, 매년 봄 성북천 일대는 복숭아꽃을 구경하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상춘객으로 북적였다. 계곡이 깊고 지형이 험해 도둑들이 많이 숨어 있는 장소로도 유명했다고 한다.



지난 4일 오후 동네 주민들이 성북천 산책로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성북천 산책로 벤치 뒷편이 주민자치회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꾸며져 있다.



성북천 산책로 벽에는 4·19 혁명에 참여한 진영숙 열사가 어머니에게 남긴 편지가 벽화로 그려져 있다.



성북천 산책길 담장에 새겨진 1919년 만세운동 전개 과정.

◆사람 사는 냄새나는 정겨운 마을

지난 4일 동대문구 신설동 안암2교부터 성북구 동소문동2가 분수마루광장까지 성북천 산책로 2.6km 구간을 걸었다.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2번 출구로 나와 대광초등학교 방향으로 543m(도보로 약 9분 소요)를 이동해 성북천 산책로에 도착했다.

이날 안암2교 다리 밑에선 백로 한 마리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성북천을 찾은 시민들은 하얀 몸통에 S자목, 멋들어진 장식깃을 가진 백로를 핸드폰 카메라에 담기 위해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다.

백로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 않고 우아하게 사뿐사뿐 걷다가 먹이가 몰려 있을 것 같은 돌무더기가 나오면 나뭇가지 같은 발로 틈새를 푹푹푹 킁꿨다. 이어 송곳처럼 날카로운 부리로 하천 바닥으로 훑은 뒤 먹이 사냥이 끝나면 물밖으로 머리를 쭉 빼냈다. '저 지지분한 물에 뭐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는데 놀랍게도 백로의 부리엔 새끼손가락만 한 물고기가 걸려 있었다. 이 하얀 새가 고개를 하늘로 치켜들자 부리에 가로로 물려 있던 물고기가 북쪽으로 쭉 들어갔다. 목안으로 고기가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 눈 앞에서 생중계되자 사람들은 '와아~!' 하며 탄성을 내뿜었다. 백로의 목 안에서 살려고 이리저리 발버둥치는 물고기의 모습은 어렸을 적 동화책 '어린왕자'에서 봤던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과 꼭 닮아 있었다.

성북천 산책로는 다른 하천 둘레길과 달리 조금 특별하다. 곳곳에 마을 사람들의 손길이 닿았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보문1교 다리 밑은 주민자치회의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들로 꾸며졌다. 김장 나눔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김치를 담그는 새마을부녀회, 빗자루로 빗물받이를 깨끗이 청소하는 자율방재단, 집게로 쓰레기를 주워담는 바르게살기위원회 소속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보문2교 인근 담벼락에는 동네 꼬마들이 직접 그린 그

림들이 다닥다닥 붙었다. 아이들은 놀이터, 빵집, 아파트, 상가와 같이 매일 일상적으로 오가는 장소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호등까지 마을 이곳저곳을 세심하게 살펴 작품에 표현해냈다.

◆3·1 만세운동부터 4·19 혁명까지...역사의 흔적 곳곳에

성북천 산책길 담장엔 1919년 성북구에서 진행된 만세운동의 전개 과정도 새겨졌다. 1919년 3월 24일 성북동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이를 뒤 오전 3~6시 신설리(현 보문동)에 살포된 '광고'라는 제목의 격문 아래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근처 여러 동리 사람들은 진정 불쌍하고 가엾도다. 너희 동리는 국가도 모르고 병어리도 아닌 바에야 어찌 대한제국 독립 만세를 부를 줄 모르는가?"

3월 26일 밤 신설리의 안감천 일대에 군중 200여명이 만세운동을 하며 전차에 돌을 던졌다. 그다음날인 3월 27일엔 전날의 두 배 이상인 약 500명이 만세운동에 동참했다. 철길을 가로지르는 전차의 유리창에 성난 표정으로 돌을 던지며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벼락에 그려졌다.

이날 성북천 산책로엔 3·1 만세운동과 함께 4·19 혁명의 흔적도 남아 있었다. 보문동에 살며 한성여중 2학년이던 진영숙은 1960년 4·19혁명 당시 어머니께 편지 하나를 남기고 거리로 나갔다. 진영숙이 시위 버스에서 구호를 외치다 미아리 고개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망하면서 편지는 곧 유서가 됐다. 그녀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글에는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이 적혀 있었다.

"지금 저와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어머니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시옵소서. (중략)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주세요"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조선시대, 복숭아꽃 만발하던 마을 큰 바위 있어 '안암천'으로 불리기도

마을주민 손길 닿은 정겨운 산책로로 산책길 담장엔 3·1 만세운동 새겨져 4·19혁명 진영숙 열사 편지 벽화도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황선홍 없는 올림픽대표팀, 3월 사우디 초청대회 참가 /사진 뉴시스
▲롯데 자이언츠, 부산시 우수납세 기업 선정

▲'민헌 핵심' 김민재, UCL 라치오전 벤치 시작 가능성
▲KIA, 스프링캠프 마치고 6일 귀국... "부상자 없어 만족"



▲LPGA 태극낭자 올해 첫 승 나올까... 7일 블루베이 개막
▲男배구 정규리그 1위 가리자...대한항공 vs 우리카드, 마지막 승부 /사진 뉴시스